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 물 절약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자

다 막대한 자원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6~7월 장마철에 강수량 많아 댐이나 보의 물을 채워야 하는 데 올해는 중부지방을 제외하고 남부지방은 비는 왔지만, 강수량이 적어 지금 상수원인 저수지 물이 바닥에 가깝다. 이것을 공개한다면 물을 절약 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온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물 절약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뭄, 홍수 등 기상이변을 일으키며, 우리나라의 경우 8, 9월 내린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뭄이 해갈됐으나 광주를 비롯해 전남 등 일부 지방은 여전히 지난해 겨울부터 역대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골의 웅덩이 샘물은 말랐다.

올해는 겨울과 봄철 및 여름 가뭄이 지속되며 장마 기간인 여름에도 비의 양은 극히 적었다.

예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강우량이 1천500mm로 저수율이 약 80%였지만, 올해는 669mm가량으로 저수율이 겨우 35%로 평년 대비 강우량이 절반가량에 그쳤다.

광주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수원지에 물이 고갈돼 시민들의 고통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물 절약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2021년 광주 상수

인당 1일 급수량은 328ℓ로 프랑스(214ℓ)와 영국(279ℓ) 등 선진국보다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물과 소비가 지속되면 향후에는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물 복지를 위해서는 수질과 수량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수량이 부족한데 수질을 논할 수 없고, 수질은 좋은데 수량이 부족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광주시는 낮은 저수율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안정성 확보 및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시행하는 조류경보제가 동북호에서 아직은 발령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동북호 및 주암호 등 상수원 수질관리와 정수장에서 수질관리 및 가정까지 공급되는 공급과정별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제 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으로 수질검사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는 우리 지역 사회의 생활용수 등 물 절약을 통한 용수 확보 노력도 시급하다.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주방에서 설거지나 채소, 과일을 씻을 때 물을 받아서 씻으면 평소 사용량의 약 60% 정도의 물 절약과 세탁기는 빨랫감을 모아 두었다 세탁하면 약 30%, 샤워 시간을 줄이고 양치질할 때 물컵을 사용하면 평소 사용량의

60~70% 정도를 아낄 수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은 주방에서의 물과 화장실에서의 물인데 대부분 가정의 화장실에는 좌변기가 설치돼 있고 12ℓ의 물통이 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물 절약을 위해 화장실 물통에 벽돌 한 장씩 넣어 물을 절약하자고 했다.

광주시 진월동 거주 서영섭(93세) 씨는 화장실 물통 절수기 발명으로 발명특허를 획득했으며 설치돼 있는 물통에 절수기를 삽입하면 12ℓ의 물통에서 4ℓ(1/3) 물로 노폐물을 완전하게 처리하는 획기적인 절수 장치로서 설치된 물통에 발명품 절수장치를 하면 벽돌 16장의 물이 절약된다.

전국적으로 화장실 물 절약을 위해 환경청에 화장실 절수장치를 건의했으나 환경청 관계자는 절수 등급제를 시행해(1등급 40, 2등급 50, 3등급 60) 가장 절수효과가 좋은 1등급 절수기를 권장하지 않고 2~3등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화장실에서의 물 절약을 위해 1등급(40) 절수기 장치를 해 물을 절약했으면 한다.

최악의 가뭄으로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물 아끼기에 동참하고 가뭄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이 창의력을 발휘해 혼연일체가 돼 물 절약 대책을 세우 추진해 우리가 직면한 가뭄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독자기고

##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보일러 점검으로 예방하자

신좌균  
정흥소방서 현장지원단 팀장

어느덧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나뭇잎이 하나 둘 단풍이 물드는 계절이 왔다. 이 시기는 갑자기 낮아진 기온 탓에 그동안 잘 사용하지 않았던 보일러 등 난방용품의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난달 9일 전북 무주군 무풍면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였다가 보일러 연통에서 새어 나온 배기가스에 중독돼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연통 내부에 장기간 쌓인 타르 성분의 그을음 물질로 인해 주택 외부로 빠져나가기 할 일산화탄소(CO) 일부가 연통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된다.

일산화탄소는 독성이 강하고 무색·무취로 노출 시에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워 어둠의 암살자로 불리기도 하며, 중독 증상으로는 두통, 메스꺼움, 구토, 호흡곤란 등이 있고 심한 경우 체내 산소 순환이 어려워져 질식사나 목숨을 빼앗기기도 한다. 따라서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보일러 작동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첫째, 연통이 막혔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 기름·화목 보일러의 연통은 그을음 등 연소 생성물에 의해 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골의 경우 하절기에 가동하지 않은 보일러의 연통 속에는 종종 말벌이 만들어 놓은 벌집(호리병벌은 흙으로 집을 만든다.) 때문에 연통이 막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둘째, 보일러 연통과 외관을 눈으로 직접 살펴보고 찌그러지거나 갈라진 틈이 없는지, 손으로 흔들었을 때 보일러 연통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빠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또한 가스배관 연결부는 식기 세제제를 물에 혼합해 거품이 충분할 때, 붓 등으로 적시면서 가스 누설을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마지막은 점검 중 문제가 의심될 때에는 보일러를 무리하게 작동시키거나 직접 수리하지 않고 반드시 시공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겨울철 우리가 사용하는 난방용품은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을 주지만 잠깐의 부주의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무서운 화마로 돌변하기도 한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미리 점검하고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다면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7개국에 속하지만, 한해(旱害) 극복을 위한 수자원 보호와 관리에 힘써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모아 쓰기 위해 댐을 만들고 보를 만들어 수자원을 저장해 사용하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이 도시는 물론 농촌까지 시설이 잘 돼 있어 선진국 복지국가라 자랑한다.

인간은 물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물의 고마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물을 아껴 쓸 줄을 몰라 해마다



###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기영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부사장	기백관				
취재본부장	서용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린알로에

#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